

‘지역별 고른 성장’ 이 2년 연속 실질성장세 견인(牽引)

북미시장은 17.3% 상승, 처음으로 1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남미시장은 31.7% 성장한 9,644백만달러를 기록, 지역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서유럽은 23.7% 증가한 9,810백만불을, 동유럽은 23.4% 증가한 1,946백만불을, 중앙유럽은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가 이끌었다. 극동지역은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시장 덕분에 16% 상승한 9,199백만불을 기록했다.

-시험부-

지역별 농약시장 분석

북미시장 북미시장의 농약판매는 17.3% 상승한 10,479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불을 달성하였다.

미국의 농민들은 연료, 비료, 종자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의 호황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입을 거두었다. 시장 가격이 좋을 때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소출을 내기위해 농약사용이 증진되었다.

목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콩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데, 재배면적이 17%나 증가하였다. 제초제 저항성 GMO 콩이 넓게 재배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glyphosate의

가격상승이 제초제 전체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제초제 중에서는 저항성 잡초를 위한 glyphosate 합제가 판매증진 되었다. 콩 녹병균이 미국 전역에 발생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다. 농부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보호 살균제를 많이 살포하였기 때문이다.

콩에서는 진딧물 창궐로 인해 살충제 판매가 증가하였다. 옥수수 재배면적은 농민들이 콩 재배를 더욱 선호하고, 추운 날씨와 계속된 강우로 7% 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glyphosate의 가격상승으로 옥수수에서의 농약 판매액은 증가하였다.

종자가격의 상승 역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써, 농민들이 파종을 할 때 종자처리제와 살균제를 사용하였다.

옥수수 시장의 신규 살균제 제품들은 수출량의 증대와 생육증대효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토양살충제의 경우 뿌리벌레(rootworm) 저항성 옥수수의 개발과 재배면적 확대에 의해 매출이 줄었다.

곡물분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초제, 살균제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목화에서의 농약판매는 재배면적의 감소로 15% 이상 감소하였다.

비작물분야에서는 해충방역분야에서 가정용의 감소와 제네릭 제품의 경쟁 확대에 의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미시장 남미시장은 31.7% 성장한 9,644백만달러를 기록하며 지역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작년 연말의 세계 경제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약간 주춤해지기도 했다.

올 한해 남미의 시장은 제초제, 살충제, 종자처리제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브라질은 작년대비 35%의 상승률을 보이며 성장을 이끌고 있다. 성장은 모든 제품군과 작물군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초제의 판매는 경작지의 증대와 글리포세이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리포세이트의 판매는 다른 작물군에서 번다운(burndown)의 사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콩들의 면적확대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콩 녹병균의 방제가 증가함에 따라 콩에서 살균제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예방적인 식물건강제품(Plant health product)으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콩 이외에도 사탕수수는 에탄올 생산의 영향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옥수수, 밀, 벼, 과일 및 채소의 분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콩에 의한 성장이 두드러졌다. 끝없는 가뭄은 옥수수, 밀, 해바라기의 재배감소를 가져왔고, 이 작물들에서 제초제와 살균제의 사용은 감소되었다.

유럽시장 서유럽의 판매는 23.7% 증가한 9,810백만불을 기록했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15.7% 상승한 것이다. 농산물가격 상승과 우호적인 날씨로 인해 곡물분야가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었다.

최근의 우수한 신제품의 출시로 제초제, 살균제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종자처리제 역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제초제 매출의 상승은 글리포세이트와 phenoxy 화학물의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전반적인 살충제의 판매부진은 몇몇 organophosphate계와 carbamate계의 중요한 제품들이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곡물에 대한 농약판매는 감소한 반면, 유채(oilseed)의 농약판매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작물의 수요증가로 증대되었다.

과일과 채소에 대한 농약판매 역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높은 질병 발생률이 살균제의 추가살포를 만들어냈다. 옥수수에는 제초제와 옥수수뿌리벌레(corn-rootworm)에 대한 살충제의 판매가 높았다.

주요 곡물시장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 높은 농산물가격이 농민들이 농약사용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농약세법이 변경된 이후 매출이 증대되었고, 2007년 4/4분기~2008년의 판매증가로 나타났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의 수요는 온화한 날씨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EU 재검토에 따른 ai의 취하가 진행되므로 인해 이러한 성장은 상쇄되었다.

동유럽에서의 지속적인 농약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23.4% 증가한 1,946백만불을 기록했다. 모든 품목군에서의 판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민들이 현대적인 농약에 대한 투자로 늘어났다.

곡물, 옥수수와 지방종자에서 상당한 판

매를 기록했다. 특히나 강한 성장을 보인 곡물분야는 이 분야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재배면적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앙유럽의 성장은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가 이끌었다. 새로운 농약의 등장과 높은 농산물가격이 농약의 사용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유통 네트워크와 신규 약제의 등록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을 매우 잘 성공시켰다. 전체적인 확장세는 금융위기가 이 지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어 농민들의 구매능력을 감소시켜 다소 누그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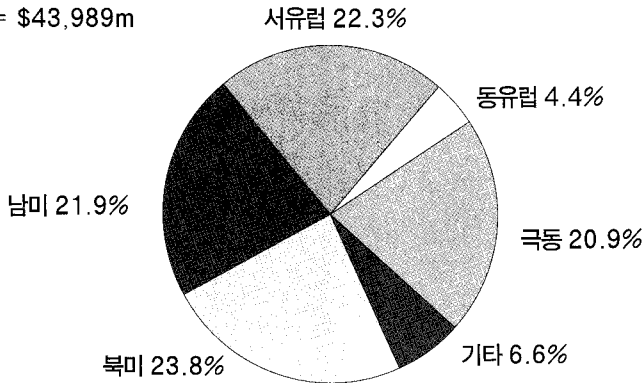
극동아시아 극동지역의 매출은 16% 상승한 9,199백만불을 기록했다.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시장이 이러한 상승을 이끌었다.

일본은 엔화기준으로 완만한 성장(달러화 기준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남아있다. 시장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부가가치 제형의 제품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수도용 제초제와 살충제의 판매는 상승하였지만, 낮은 벼도열병 발병률이 살균제의 수요 감소를 가져왔다.

콩을 비롯한 과수와 채소에서 판매가 증가하였다. 중국시장의 현대화는 성장세를

2008 지역별 농약시장

시장규모 = \$43,989m



지속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도입을 위해 등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관련법과 높은 원자재가격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글리포세이트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가장 큰 단일품목으로 글리포세이트를 생산하는 중국의 경우 약제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중국 농약시장의 가치를 크게 키웠다. 하지만, 이후의 과잉생산은 하반기에 가격의 하락을 불러왔고, 초기 판매증가를 상쇄시켰다. 중국의 북경지역에서 발생한 연말의 극심한 가뭄 역시 농약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는 다르게 호주에서의 적당한 강우는 농약판매를 급증시켰다. 주요 작물인 곡물, 케놀라, 목화의 재배 확대는 제초제와 살균제의 수요를 증대시

켰다.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농약의 가격상승은 전체 시장의 크기를 더욱 키웠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쌀과 채소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많은 이득을 보았다.

기타지역 나머지 지역의 경우 매출이 17.2% 증가한 2,911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주요시장은 인도로써 시장의 완만한 상황에 따라 농약의 수요가 상승하였다. 목화부문이 차지하는 농약매출은 Bt 품종의 빠른 재배면적 확대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상반기 농약가격의 강세와 이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이익을 냈다.

밀, 수도, 지방종자와 채소분야 역시 종자와 농약사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파키스탄, 터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도 전체 매출성장에 기여하였다. Y